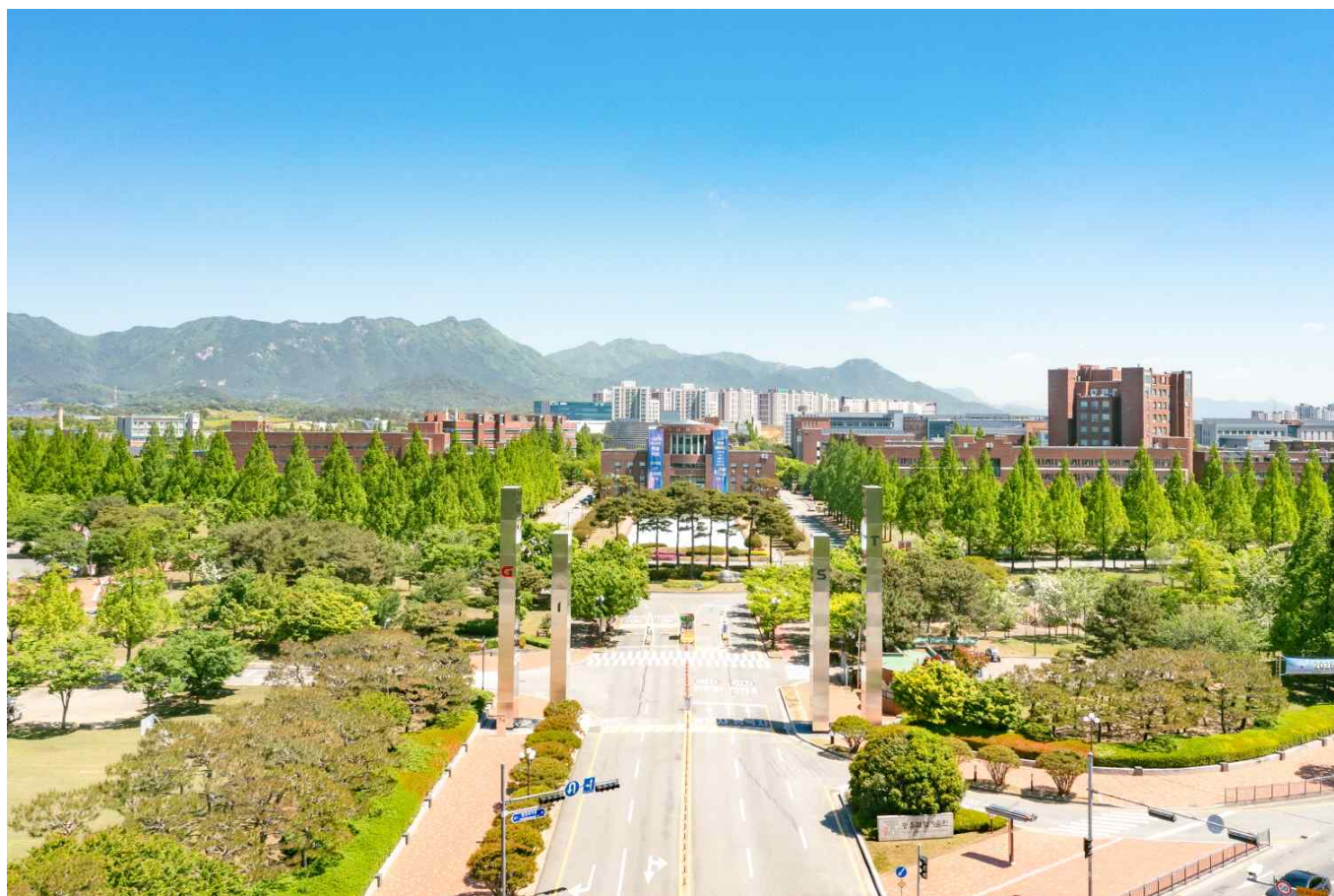


특히 이번 포럼은 **GIST 창업혁신진흥원 개원식과 연계해 개최된다.** 정부의 과학기술원 중심 창업도시 조성 정책에 따라 출범한 창업혁신진흥원은 **기술창업과 사업화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AI·반도체·에너지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첨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지역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포럼은 **과학기술 기반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행사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과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임문영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을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당선인,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지역의 미래 성장 전략과 과학기술 기반 혁신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 GIST 캠퍼스 전경

포럼은 ▲**창업혁신진흥원 개원식**으로 시작해 ▲**환영사 및 축사** ▲**기조연설** ▲**축하공연** ▲**주제 발표** ▲**그랜드 토크** 순으로 진행된다.

오프닝 세션에서는 **임기철 총장**이 환영사를 통해 **GIST의 지역 혁신 비전**을 소개하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기조연설**을 맡아 **초광역 통합시대의 지역 발전 방향과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발표 세션에서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GIST 주요 책임자와 교수진이 참여해 ▲경제성장의 엔진(창업혁신) ▲미래산업의 지도(AI 반도체) ▲혁신국가의 좌표(초광역 혁신 전략) ▲시대정신과 철학(AI 신문명과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발표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 비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GIST의 역할을 제시한다.

세부적으로는 ▲김재관 창업혁신진흥원장(의생명공학과 교수)이 '경제성장의 엔진: 창업 혁신과 지역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창업 기반 지역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김강욱 AI대학장(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교수)이 '미래산업의 지도: AI 반도체와 미래 게임 체인저'를 통해 AI 시대 핵심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박기홍 4극3특 과학기술혁신사업단장(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이 '혁신국가의 좌표: 4극 3특과 초광역 혁신 전략'을 주제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 정책을 소개하며, ▲곽재원 AI정책전략대학원 특임교수는 '시대정신과 철학: AI 신문명과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기술 발전과 인간 중심 가치의 조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인 '그랜드 토크'에서는 정용화 대외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발표자들과 함께 '통합의 물결,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는 GIST의 담대한 전진'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과 초광역 협력, 그리고 GIST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비전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GIST와 광주 첨단지구 일대 전경

임기철 총장은 "이번 포럼은 AI 전환과 초광역 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이 지역의 미래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며 "지역사회와 산·학·연·관이 협력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GIST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창업혁신진흥원 출범과 연계한 창업·산학협력 정책을 본격화하고,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반도체, 에너지 분야의 연구 역량과 인재 양성 기반을 바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 전략 수립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과학기술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예정이다.